

상업사 연구의 지평 정치 · 사상사 분야로 넓혀

《조선 후기 상업사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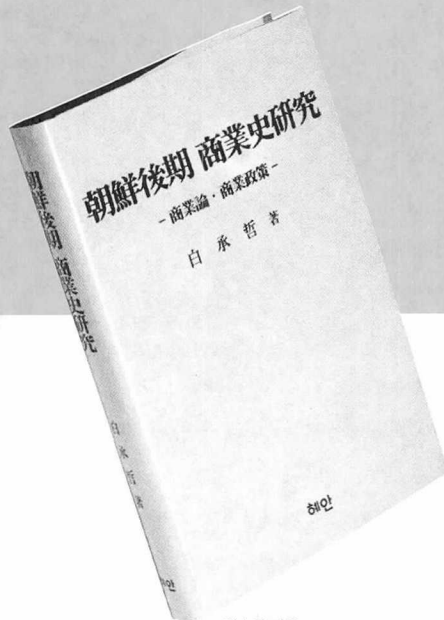
이 옥 |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이 책은 조선 후기 상업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던 분야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우선 시기적으로 16, 17세기 상품경제 발전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켰다. 조선전기와 후기를 잇는 시기임에도 16, 17세기는 자료의 제약으로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이런 공백을 메우고 16, 17세기 상품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맹아론에 입각한 상업사 연구는 상품경제 발전과정에서 국가정책의 의미와 역할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상업발전의 역사적 의미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상품유통경제의 발달정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함은 물론, 당대 조선왕조가 마련하고 지향했던 상업론과 상업정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조선 후기 상업론과 상업정책을 심도 있게 다룬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크며, 상업사 연구 영역을 정치 · 사상사로까지 확장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상업정책의 사상적 배경 밝히

이 책에서 저자는 17세기 이후 상업론과 상업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두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하나는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의 상품유통 구조가 '도성집중적(都城集中的) 교역구조'라는 것이다. 즉 조선왕조 정치 · 경제의 중심지인 도성은 16세기 몰락농민층의 유입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들의 일용품 소비를 바탕으로 도성과 지방 사이의 원격지 교역이 발전했다. 곡물과 목재를 비롯한 일용품, 방납을 위한 공납상품이 도성으로 집중돼 판매됐다. 그리고 이런 원격지 교역은 항상적이고 구조적인 양상으로 발전해 전국을 포괄하는 도성집중적 교역



백승철 지음
한울/A5신/380면/20,000원

망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조선 후기 사회에서 전개된 상업론과 상업정책은 상품유통경제의 특성상 당시 각 당파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체제, 즉 국가재조방략(國家再造方略)을 잘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상업정책을 실천하는 각각의 방안들을 국가재조방략이란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저자는 상업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조선 전기에는 '무분억말론'(務本抑末論)이 주류를 이뤘는데, 16세기 후반이 되면 상품경제의 발전이라는 현실을 수용한 '무분보말론'(務本補末論)이 대두했고, 17세기가 되면 무분보말론이 국가재조방략과 연결되면서 크게 두 계통으로 나뉘어 대립했다. 근기남인의 이권재상론(利權在上論)과 서인=노론계열의 재부민산론(財富民散論)이 그것이다. 이런 대립은 좁게는 상업이윤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갈등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국가재조의 주체 설정과 목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근기남인의 상업론은 상품유통 경제의 이익을 국가와 민에게 돌리려는 것이었고, 이는 결국 군주권을 강화하

고 지주제 혁파를 통한 변법적인 국가재조방략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 서인=노론의 상업론은 양반지주층이 현실의 상업질서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이익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었고, 결국 신료 · 양반지주층 중심의 상업정책론이라는 것이다.

특권상인 육성책의 목적 밝힌 점 주목할 만해

그리고 이처럼 두 계통으로 형성된 상업론은 정권의 향방에 따라, 그리고 현실 상품유통경제의 발전 양상에 따라 상업정책에 반영됐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채택,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논리가 취합, 절충되는 가운데 상업정책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인 추세는 17세기 후반 이후 서인=노론이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재부민산론에 입각한 신료, 양반지주층 위주의 정책을 기반으로 남인계열의 논리가 국왕을 통해 일부 수용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업발 전단계에서 봤을 때, 이 시기는 조선전기 '무분억말단계'와 구분되며, 이후 19세기 말부터 전개되는 '상업입국단계' 및 '산업화단계'로 이행하는 점진적인 발전과정이었다고 마무리짓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저자의 특권상인에 대한 인식이다. 저자는 조선정부의 특권상인 육성책이 이 시기 상업정책의 봉건적 특징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상품유통경제를 장악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봤다. 따라서 특권상인 육성이 이런 목적을 실현하는 데 유용한 방안이 되지 못할 경우,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당연히 폐지될 수 있었다. 신흥통공과 주교사의 설치가 이런 의미를 지녔다는 것이다. 당시의 운영원리나 사고방식을 통해 상품경제를 바라보려는 시각으로 음미할 만한 대목이다.●

‘존재-신학’ 론적 해석학의 한 전범

《해석의 갈등》

김한식 | 중앙대 불어학과 교수



폴 리코르 지음/양명수 옮김
아카넷/A5신/592면/25,000원

해석학이란 텍스트의 뜻을 따지고 물으면서 그 뜻을 이해하는 방식을 다루는 학문이다. 고대의 《성서》 주석학과 중세 이후의 문헌 해석학은 텍스트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한 엄격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단 하나의 진정한 의미, 올바른 해석이란 있을 수 없다. 《성서》를 신학적으로 읽을 수도 있으나, 정신분석학적으로 읽을 수도 있으며, 구조에 따른 의미 효과를 말할 수도 있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해석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해석학의 반성적 · 실존적 차원 개척해

그렇다고 폴 발레리의 말처럼 “텍스트는 무한한 의미를 유발하며 텍스트의 참된 의미는 없다”고 해야 할까? 해석은 ‘그럴 듯한 추측’이다. 그렇다면 텍스트의 뜻을 ‘이해’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근대 해석학의 출발점을 이루는 성찰, 즉 이해의 성격과 조건, 그리고 기능에 관한 성찰이 나온다. 하지만 해석학이 삶의 문제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텍스트를 읽고 세계를 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기도 하며, ‘나’는 삶의 뜻을 새로 세우기도 한다. 내가 텍스트를 해석하지만, 해석하면서 내가 해석되는 것이다. 이것이 해석의 순환이다. 그렇게 해서 텍스트 이해와 세계 이해, 자기 이해와 같은 존재론적 물음이 들어오게 되고 해석학은 철학이 된다. 일반적으로 상징 해석학 또는 텍스트 해석학이라 불리는 리코르의 해석학이 다루는 물음은 바로 그런 것들이다.

《해석의 갈등》은 폴 리코르가 1963년에서 1969년 사이에 쓴 글들을 모은 책이다. 저자는 《악의 상징》에서 《해석에 관하여—프로이트론》에 이르는 자신의 해석학적 작업을 정리하고 해석학의 전체적인 윤곽을 제시함과 아울러 앞으로 나아

갈 방향을 세운다. 그 핵심은 언어, 특히 상징 언어의 해석에 있다. 상징 언어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거룩한 경험이나 억압된 욕망 같은 불투명한 존재 체험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정신분석학이나 종교현상학, 그리고 신학은 그런 상징의 구조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들이다. 《해석의 갈등》은 이런 여러 가지 해석방법이 서로 엇갈리는 것을 살피고, 그것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이론에서 나온 것임을 밝혀냄으로써 해석의 구조를 분석한다. 그리고 다양한 해석 방법들의 유효성과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주도권 다툼을 중재하고 종합한다. 그것이 바로 해석학이 의미론 차원에서 갖는 비판적 기능이다.

하지만 리코르의 해석학은 이런 비판적 기능에 머물지 않고 반성적 차원과 실존적 차원으로 나아간다. 사람은 다양한 해석의 갈등이 벌어지는 상징의 뜻을 풀면서 현실을 해석하고 삶의 뜻을 찾기 때문이다. 말뜻을 풀면서 삶의 뜻을 찾는 주체는 이미 데카르트의 오만한 코기토가 아니다. 상징을 통해 드러나는 거룩한 경험과 욕망의 현실은 주체 철학에서 말하는 코기토에 모욕을 가하고 상처를 입힌 것이 사실이지만, 이 덕분에 주체는 오히려 겸손해지고 깊어질 수 있

다는 것이다. 이제 코기토의 반성이란 자기 대 자기, 투명한 자기 의식이 아니라 기호나 상징 그리고 텍스트라는 매개를 통해 존재와 연결된 자기 이해가 된다. 텍스트의 해석을 통해 자기와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리코르의 해석학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이해로서의 해석학과 만난다. 그러나 텍스트를 통한 자기 이해라는 에움길을 택한다는 점에서 하이데거와는 다르다. 이처럼 리코르의 철학은 종교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반성하는 주체, 근대적 주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생각하는 주체를 살리면서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상징을 푸는 해석 작업, 즉 근대적 주체가 잃어버린 거룩한 체험을 다시 찾고 억압된 무의식을 의식화함으로써 삶의 뜻을 찾아 존재의 신비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를 통해서라는 것이 《해석의 갈등》에서 리코르가 말하는 상징 해석학의 존재-신학이다.

쉽고 친숙한 번역 돋보여

해석학은 우리에게 아직 낯선 학문이다. 리코르의 해석학은 더구나 상당히 난해하다. 하지만 해석이란 멀리 떨어진 것을 가깝게 만들고, 낯선 것을 친숙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책의 번역은 어렵고 낯선 언어를 ‘홀뜻’ ‘겹뜻’ 등의 우리말을 사용해 쉽고 친숙하게 풀어냄으로써 번역의 새로운 맛과 멋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책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역사 해제와 리코르의 연보는 독자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을 번역하는 데 바쳤을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깊이 있는 철학이 깊이 있는 번역자를 만나서 누리는 행복을 독자도 같이 느껴보기를 권한다.●